

車반도체 품귀에... 車업계 “직접 만들자” 국산화 시동

반도체 부족에 섰다운만 수차례 국내車, 생산량 조절하고 있지만 수급대란 장기화에 업계 ‘비상’

현대모비스, 반도체 내제화 추진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개발 검토

올해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귀한 몫이 된 부품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혁명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올해 초 직격탄을 맞은 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결국 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초기 예상과 달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자동차 제조를 중단한다. 이번 섰다운은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휴업으로 이번이 네번째다. 아산공장 생산라인은 지난 4월 12~13일과 19~20일, 5월 24~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일간 멈췄다. 현대차는 앞서 5월 17~18일에는 투싼과 넥쏘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을 섰다운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기아는 역시 소하리 2공장이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반도체 부족 난에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해외 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로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18일(현지시간) 5일 동안 1차 섰다운에 들어간다. 앨라배마 공장은 21~25일 5일간 생산을 재개한 뒤,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2차 섰다운은 연례 공장 정기점검을 위한 것이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기아 조지아 공장은 14일부터 23일(근무일 기준 8일)까지 반도체 부족으로 기존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전환 운영한다. 앞서 조지아 공장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반도체 물량 부족으

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이틀간 휴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부평·창원 공장

의 차량 생산량을 절반 가량 감소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생산 기지 정상화에 따라 부평·창원 공장 모두 정상 가동중이다. 특히 한국 지엠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주력 수출 제품에 대한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도 반도체 소자 부품구급 차질로 지난 4월 8~16일 공장 가동을 멈췄다. 또 19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르노그룹이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주력 모델인 XM3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등과 관련해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차량 생산에 부담이 작용할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SMIC와 대만의 TSMC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차량 생산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전장 부품 사업을 맡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중장기 성장전략 콘퍼런스에서 반도체 내제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담당 실무진이 DB하이텍·키파온드리와 접촉해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쿠팡과 부산광역시가 부산물류센터 구축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쿠팡

“부산 물류센터, 해외진출 전진기지 기대”

>> 1번 ‘쿠팡, 국내투자 확대’서 계속

3000개 이상 직접고용 효과 전망

이번 부산 물류센터 투자 협약은 3월 전라북도, 4월 경상남도, 5월 충청북도에 이어 올들어 네번째로 발표된 쿠팡의 국내 투자 계획이다.

그간 발표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200억원 이상이며 물류센터 건물의 연면적을 합치면 70만㎡를 넘어선다. 7000㎡ 넓이 축구장 100개와 맞먹는 규모다. 쿠팡은 부산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3000개 이상의 직접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2024년 준공 예정인 부산 물류센터를 상품 관리, 배송 동선 최적화

등 유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T)을 융복합한 혁신 기술들을 망라한 첨단물류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당 물류센터는 수출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시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부산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신항만과 인접해 입지적인 강점이 뛰어나 쿠팡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산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인생에 든든한 보험이 필요한 순간마다 늘 당신 곁을 지켜온 한화생명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의 활기찬 인생이 이어지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 사회 초년생까지 부담없이 **LIFEPLUS 어른이보험(무)**
- 치아관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한화생명 스마일 치아보험(갱신형)(무)**
- 중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무)**
- 가임 문턱은 낮추고 가임 한도는 확대한 **한화생명 간편가임 노후안심 치매보험(무)**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치매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해보험금)에 가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8만 지급합니다. 차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8만 지급합니다. 차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의회제 2020-03030호 (2020.10.27)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0-10-22

LIFE PLUS **한화생명**